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4월 7일 (부활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5장 13-16절

설교제목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를 위한 삶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명확하게 확증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한 삶에는 세상과의 갈등이 필연적입니다.(마10:34) 따라서 팔복 이후에 선포되는 오늘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이 됩니다. **마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며”**. 너희는 ‘복수’입니다. 본문의 ‘너희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앞서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제국으로 인해 사회적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어쩔 수없이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디다가, 배고픔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배교의 문제와 좀 다릅니다. 현실 속에서 부딪친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며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갈등으로 인해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마5:13) 세상의 소금을 직역하면 ‘땅의 소금’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틴에서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땅에서 채취하는 특유의 소금 생산 방법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명령이 아닌, 직설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든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입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일차적으로 소금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즉 소금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든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맛이 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존재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에서 광야에 나가기 전 눈에 띄는 것이 유월절을 두 번 행하게 합니다. 출애굽 후 2년째 되는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달 이후에 늦은 유월절을 또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1월 14일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나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도록 합니다. 왜 이토록 유월절을 강조합니까? 유월절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예배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기능이 오늘날 매주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세상이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마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본문에 ‘세상의 빛’을 직역하면 ‘우주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우주 공간의 빛을 발하는 태양이나 별과 같은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명령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너희는 빛이라는 말씀 역시 우리의 존재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빛은 우선,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위의 동네’는 고대 팔레스틴이 도시는 언덕과 같은 고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구약에서 산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상징했습니다. 하여튼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해도, 빛이 있으면 결코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에서 ‘~할 것이요’로 번역된 헬라어가 ‘뒤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폭발력이 강한 폭약을 뜻하는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존재됨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은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인 등불, 혹은 등잔이 유일한 조명 기구입니다. 이러한 등잔을 벽에 돌출된 등경위에 두어 온 방을 밝게 합니다. 말로 번역된 ‘모디온’은 흙으로 만들어져 약 9리터 정도까지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성냥이 없어 불을 쉽게 피울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등잔을 등경에서 내려 말로 덮어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뱀 등과 같은 동물들이 등잔을 잘못 건드려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등잔을 말로 덮어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빛이란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비추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란 정확한 의미로 너희 안에 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요일1:5)이며 예수님의 빛(요8:12)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비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착한 행실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영한다, 비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빛의 두 가지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민수기에서 광야에 나가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두 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